

보건행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융합적 접근

김희경
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교수

Convergence Approaches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s of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Hee-Kyeo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ospital Medical Information, Cheonga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전국에 소재한 10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250부를 SPSS Ver.24.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 보건행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세부 영역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세부 영역 중 전문직 실무이다. 따라서 보건행정학 전공학생들의 임상 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 전 충분한 실습지의 점검과 사전실습 지도교수와의 상담, 그리 고 이에 맞는 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실습 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주제어 : 임상실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보건행정학, 융합적 접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A total of 250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24.0 program for students from 10 universitie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udents of health administration major showed th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level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more than averag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variables that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professional practice in the detail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students in health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heck the training site before practical training, to consult with preliminary practical guidance professor,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program and to find a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with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need.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s, Health Administration Majors, Fusion approach.

*Corresponding Author : Hee-Kyeong Kim(khk3406@nate.com)

Received May 9,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3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병원은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조직 경영 합리화와 업무 효율성이 이미지 및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 특히 병원행정 부서는 병원내 각 부서 또는 구성원을 연결시키고,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등 업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특성이 있어 병원경영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이러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4]. 임상실습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된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키고, 실무 적용 능력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다.

임상실습의 질과 만족도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확신과 진로 결정 수준에 중요한 변인으로 적용하게 되며, 전공만족도와 진로선택의 동기요인에 따라서 진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5-8]. 또한, 임상실습 과정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과정을 통해 보건행정 전문인으로 확고한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성별과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부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책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 등의 조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9]. 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은 교육, 실무, 연구와 관련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아전환의 과정으로서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개념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속성 때문에, 자아개념은 미래 행동을 설명하고 결정하는 개념적 틀이 된다[11].

보건행정학 전공 학과는 현장실습을 재학 중 대부분 산업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습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이론을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단순 업무 및 사무 보조로 배운 지식을 활용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현장 상황에 따라 기회의 제한을 받고 있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 및 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진로 설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보건행정학 전공 학생들은 타 보건계열 학과들처럼 단일 직종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특수성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문직 진로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으면 임상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12], 방사선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13], 일개 보건계열 전문대학의 보건통합교육이 병원행정직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14],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병원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5], 일개지역 전문대학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전공만족과 향후 진로 선택의 상관성[16], 응급구조학전공 학생의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19],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20] 등이 있다. 주로 다른 의료기사와 간호 영역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 만족도 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정학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2, 3, 4년제 보건행정(의료정보, 보건의료 등 포함)학과 학생들 중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 분석방법을 다변량 회귀분석 검정으로 하여 최대 19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4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는 각 대학의 해당 학과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여 회수하였다.

2.2 연구 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4문항, 임상실습 관련 특성 14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13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27문항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는 방사선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13], 응급 구조화전공 학생의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 방사선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20]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선화[13]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741, 박소미[17]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27, 김학성[20]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4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39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은 Arther[21]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송경애와 노춘희[22]가 번역하고 김주선[23]이 수정, 보완한 간호사 전문직 자아개념의 도구를 보건행정학 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하위영역인 전문직 실무영역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주선[23]의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58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4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전문직 실무영역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58, 만족감은 .908, 의사소통은 .825였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95% 유의수준으로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실습 경험 특성, 임상실습선호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과 실습 경험에 따른 실습만족도, 전문직 자아 개념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 상관성은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실습 경험 특성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실습 경험 특성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199명(79.9%)가 여성이었으며, 2학년이 72명(28.9%), 3학년이 153명(61.4%)이었다. 이 중 1학년 37명(14.9%)는 2년제로 운영하는 경우였다. 보건행정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업을 고려 한 경우가 50명(22.3%)로 가장 많았고, 부모, 친지, 교사의 권유가 43명(19.2%),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42명(18.8%) 순이었다. 임상실습은 대부분 2학년 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기관은 종합병원(48.0%), 병원(29.8%) 순으로 많았다. 실습시 주로 자택(69.9%)에서 거주했으며, 실습병원 선택시 본인이 직접 선택(55.2%)하거나 학교에서 지정(37.5%)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가 있는 경우(79.1%)가 대부분이었으나, 없는 경우와 실습교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임상실습 지역은 서울·경기지역(32.3%)이 가장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ociology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249

Item		N(%)
By gender	Men	50(20.1)
	Women	199(79.9)
The grade	One year	6(2.4)
	Second grade	72(28.9)
	Third grade	153(61.4)
	Fourth grade	18(7.2)
Choose majors Synchronous	Consider employment	50(22.3)
	Active consideration	42(18.8)
	The expertise of the major	36(16.1)
	Stability of jobs	28(12.5)
	High school grades	25(11.2)
	Parents, relatives and teachers	43(19.2)
Clinical	University hospitals	35(14.1)

practice Agency	General hospital	119(48.0)
	Hospital (convalescent hospital Included)	74(29.8)
	Other	20(8.1)
The practice	The home	174(69.9)
	Other than home	75(30.1)
Clinical practice Time	1학년	37(14.9)
	2학년	172(69.1)
	3학년	38(15.3)
	4학년	2(0.8)
Lab Hospital Line	Select yourself	137(55.2)
	Specified at school	93(37.5)
	The draw	5(2.1)
	Other	13(5.2)
Professor of practical practice	It is set	197(79.1)
	It is not set	32(12.9)
	Other (comics)	20(8.0)
Clinical practice area	Jeonnam and Jeonbuk regions	70(28.2)
	South Chungcheong Province	71(28.6)
	Gyeongnam and Gyeongbuk regions	3(1.2)
	Seoul and Gyeonggi Province	80(32.3)
	Other	24(9.7)

3.2 주요 측정변수 수준

주요 변수들의 수준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실습만족도는 3.08점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전문직 자아 개념의 세부 항목 중 전문직 실무는 3.08점, 만족감은 2.96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의사소통 점수는 2.50점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Table 2. Measurement variable level

Item		MIN. value	MAX. value	M±S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00	4.00	3.08±.55
A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affairs	1.00	4.13	3.08±.47
	Satisfaction	1.00	4.00	2.96±.55
	Communication	1.00	4.00	2.50±.77

3.3 임상실습 선호도

본인이 선호하는 임상실습의 전반적인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임상실습시기는 67명(67.1%)이 2학년 겨울방학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임상실습기간은 4주로 196명(79.0%)으로 많았다. 임상실습 중 애로사항은 단순 업무가 많아 흥미가 떨어짐 84명(35.9%), 지도자와의 갈등 55명(23.5%)로 순으로 많았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실습 전 교육 70명(28.8%), 병원의 실습내용 및 방법 69명(28.4%), 병원의 실습환경 26명(10.7%),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미흡 21명(8.6%)으로 실습 전 교육과 임상실습 내용에 대한 것 대부분이었다. 임상실습에 가장 도

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우선순위에별로 의 활용어 92명(40.4%),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30명(3.2%), 의무기록실무 23명(10.1%)으로 나타났다. 학과에서의 실습지도 및 관리시기에서는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220명(88.7%)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3. Clinical practice preference n=249

Item		N(%)
Appropriate clinical practice	A sophomore break	167(67.1)
	A third semester	9(3.6)
	A third-grade summer vacation	23(9.2)
	The third semester of the year	5(2.0)
	Third grade winter vacation	8(3.2)
The appropriate clinical practice period	Other	37(14.9)
	Four weeks	196(79.0)
	Five weeks	14(5.6)
	Six weeks	18(7.4)
Arlofacts during lab exercises	For more than seven weeks	19(8.0)
	conflict with the leader	55(23.5)
	Competition with school students	20(8.5)
	Simple work is a lot of fun	84(35.9)
	Less connection to school class	18(7.7)
	Lack of rest room	23(9.8)
Improvements required	Food problem	18(6.0)
	Expenses, traffic problems	16(6.9)
	Before training	70(28.8)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21(8.6)
	Hospital labs and methods	69(28.4)
	Method of practice in schools	10(4.1)
	Hospital practice	26(10.7)
	Labs	13(5.3)
	Evaluation method	3(1.2)
	Assignment hospitals and assignments	12(4.9)
They think they have received the most help in clinical practice	Lack of lab opportunity	19(7.8)
	National health insurance	18(7.9)
	The mandatory records	23(10.1)
	Medical terminology	92(40.4)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Students in the Academy	Disease and surgical classification	30(13.2)
	Other	65(28.8)
	Orientation before practice	220(88.7)
	Maps during the exercises	21(8.5)
After the exercise coach	Other	1(0.4)
	Other	6(2.4)

3.4 일반적 특성과 실습 경험에 따른 실습만족도, 전문직 자아 개념 차이

일반적 특성과 실습 경험에 따른 실습만족도, 전문직 자아 개념 차이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따라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거나 전공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학생들보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Table 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 Self-Experience, depending on general academic performance and lab experience

Item	Variabl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t/F(p)	Professional ego concepts (M±SD)	t/F(p)
By gender	Men	3.10±.71	0.272 (0.786)	3.04±.65	1.229 (0.220)
	Women	3.08±.50		2.96±.39	
The grade	One year	3.36±.50	2.199 (0.089)	3.19±.42	1.624 (0.184)
	Second grade	3.18±.41		3.01±.41	
	Third grade	3.02±.61		2.93±.48	
	Fourth grade	3.19±.39		3.12±.38	
Choose majors Synchronous	A job consideration	3.12±.70	3.159 (0.003) a,b,c,d>e	2.93±.60	2.586 (0.054) b,c,d>e
	Active consideration b	3.18±.38		2.99±.30	
	The specialty c	3.19±.51		3.03±.39	
	Stability d	3.19±.47		3.10±.40	
	High school grades	2.67±.49		2.74±.33	
Parents, relatives, teachers	Parents, relatives, teachers	3.03±.45	0.253 (0.859)	2.90±.38	1.084 (0.359)
	University hospitals	3.15±.52		2.99±.40	
	General hospital	3.06±.57		2.94±.49	
	Hospital(convalescent hospital Included)	3.09±.57		2.99±.42	
Other	Other	3.09±.42	1.436 (0.233)	3.13±.44	1.243 (0.295)
	One year	3.23±.41		3.01±.38	
	Second grade	3.05±.58		2.95±.47	
	Third grade	3.09±.51		3.03±.44	
Fourth grade	Fourth grade	3.50±.38	1.152 (0.329)	3.48±.68	2.217 (0.087)
	Select yourself	3.04±.59		2.91±.46	
	Specified at school	3.12±.50		3.04±.44	
	The draw	3.26±.43		3.18±.46	
Other	Other	3.28±.41	-0.788 (0.432)	3.12±.46	-1.308 (0.192)
	The home	2.95±.55		2.95±.48	
	Other than home	3.03±.54		3.03±.40	
Professor of practical practice	It's set	3.14±.50	8.933 (0.000) a>b	3.02±.42	4.867 (0.008) a>b
	Not fixed b	2.72±.75		2.76±.49	
	Other (comics) c	3.09±.46		2.90±.49	
Clinical practice area	Jeonnam and Jeonbuk regions	3.10±.52	0.521 (0.721)	3.02±.48	1.598 (0.175)
	South Chungcheong Province	3.01±.68		2.88±.50	
	Gyeongnam and Gyeongbuk regions	3.03±.04		2.82±.19	
	Seoul and Gyeonggi Province	3.10±.42		2.99±.42	
	Other	3.18±.59		3.11±.34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진 학교의 학생들이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반면, 성별이나 학년, 임상실습 기관, 임상실습 시기 등 다른 변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5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성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세부 영역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전문직실무, 의사소통 순으로 Table 5와 같이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Factor by Correlations)

Item	Inhabitants	Professional affairs	Satisfaction	Communication
Inhabitants	1	.714***	.716***	.143*
Professional affairs	.714***	1	.824***	.270***
Satisfaction	.716***	.824***	1	.295***
Communication	.143*	.270***	.295***	1

3.6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조사 대상자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상실습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별량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전문직 자아개념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실습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입과 제

Table 6.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odel category	Non-standardized factors		Standardization factors	t(p)	correlations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734	.167		4.397(0.000)	.000	
Communication	-.051	.032	-.072	-1.599(0.111)	.111	.859
Professional affairs	.495	.088	.423	5.645(0.000)	.000	.306
Satisfaction	.334	.079	.336	4.220(0.000)	.000	.272
No faculty	-.174	.074	-.107	-2.365(0.019)	.019	.841
Unknown professor	.096	.085	.048	1.136(0.257)	.257	.961
Choosing a Major (Considering Employment)	.021	.071	.015	.300(0.764)	.764	.731
Selection of a major (consideration of aptitude)	.014	.073	.009	.188(0.854)	.854	.777
Select major (major specialty)	-.013	.079	-.007	-.160(0.873)	.873	.810
Choosing a major (considering grades)	-.237	.085	-.131	-2.799(0.006)	.006	.790
Select major (Parents, relatives, teacher invitation)	.016	.069	.011	.231(0.817)	.817	.758

Depende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2 : 0.771

Modified R2 : 0.594

dummy variable(reference) : Professor Here, Choose majors(Consider employment)

거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F확률은 0.05와 0.10을 선택 하였으며, 공선성의 경우 허용 오차, 분산팽창요인 모두 기준값을 만족하므로 다중 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결과는 Table 6과 같이 4개의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설명력은 77.1% 였다.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세부 영역 중 전문직실무($\beta=.495$, $p=.000$)이며, 만족감($\beta=.334$, $p=.000$),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beta=-.237$, $p=.006$),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beta=-.174$, $p=.0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실무와 만족감이 높은 경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와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았다.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08점으로 평균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방사선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13]의 4점 만점에 3.19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임상병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만족도[18]의 5점 척도를 4점으로 환산한 3.18점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18]의 2.63점과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12]의 2.7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은 2.85점이며 영역별로 전문직 실무 영역이 3.08점, 만족감 영역이 2.96점, 의사소통 영역은 2.50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의사소통 점수는 2.50점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방사선학과 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13]도 전체 평균은 2.92점,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 영역이 3.02점, 만족감 영역 2.87점, 의사소통 2.65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19] 수준은 전체 평균은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12]은 전체 평균 2.61점,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 영역이 2.73점, 만족감 영역 2.40점, 의사소통 2.4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선행연구들에서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상실습 기간에 형성되는 직장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임상실습이 단순한 반복 보조업무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현장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3]에서도 임상실습 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임상실습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우선순위에 따라 의학용어 92명(40.4%),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30명(3.2%), 의무기록실무 23명(10.1%)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 결과[15]에서도 보건의정학 전공 학생들의 병원실습시 가장 도움을 받은 받은 교과목은 의학용어로 49.5%(97명)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의 병원 실습[17]시에도 의학용어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상실습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학용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따라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 선택 시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거나 전공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학생들 보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또한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진 학교의 학생들이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24]의 연구에서도 간호학과 선택 동기, 주 실습지도자 등이 실습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보건의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세부 영역 중 전문직실무($\beta = .495, p = .000$)이며, 만족감($\beta = .334, p = .000$),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beta = -.237, p = .006$),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beta = -.174, p = .0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와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았다.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전문적 실무와 만족감이 높은 경우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25]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의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수준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보건의정학 전공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은 전공 선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거나 전공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진 학교의 학생들이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 개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의 세부 영역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세부 영역 중 전문직실무($\beta = .495, p = .000$)이며, 만족감($\beta = .334, p = .000$),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beta = -.237, p = .006$),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beta = -.174, p = .0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적 실무와 만족감이 높은 경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한 경우와 학교에 실습담당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았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보건의정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의정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충분한 실습지의 점검과 사전 실습지도교수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학교와 임상실습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정학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여 전문직으로 자아개념 확립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행정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자아 개념 비교 대상 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전분분야의 연구 도구를 수정 사용하였다. 보건행정학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도구와 차후 실시되는 인증 평가 항목의 전문직 자아 개념 연구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행정학 관련 전문직 준비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 개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임상실습을 만족 시킬수 있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행정학 전공학생들의 임상실습시 단순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은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프로그램 교육과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개 대학의 보건행정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일반화할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S. Kim.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Hotel Employee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3), 203-225.
- [2] K. I. Hwang, I. H. Lee & H. S. Rhee. (2014). The Influence on Metropolitan University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b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4(10), 639-648.
DOI : 10.5392/JKCA.2014.14.10.639
- [3] I. S. Park & S. H. Lee.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4), 295-302.
DOI : 10.17135/jdhs.2007.07.4.295
- [4] C. M. Park. (2019). *Effects of Integrated Health Education in health department of a colleg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ask Satisfaction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keimyung university, Daegu.
- [5] Y. J. Kim. (2015). A Study on the Effect Verification of Industry-Academy program on the Changes in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5(1), 161-178.
DOI : 10.1016/j.jbusres.2015.01.161
- [6] C. K. Park. (2011). A Study on the Factors for Affecting Satisfaction of Students' Internship on the Tourism Related Department in University & College : Focusing on the Travel Agency's Internship in Capital Are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7(3), 179-200.
- [7] H. K. Lee. (2008).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Practicum on Career Choice*. Chosun University, Gwangju.
- [8] S. Y. Kim. (2008).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ates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 - Case of Three Universities in Chonbuk Reg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 [9] J. W. K. Geiger & J. S. Davit. (1988).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19(12), 50-58.
DOI : 10.1097/00006247-198812000-00011
- [10] M. H. Kim. (2000).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of Profession and Duty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Nurse*. G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11] E. Arnold & K. U. Boggs.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 Philadelphia : Saunders.
- [12] S. H. Kim. (2018).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Chosun University, Gwangju.
- [13] S. H. Kim. (2014).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Radiological Students*.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Inje.
- [14] B. J. Park, S. J. Park & H. Ch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220-227.
DOI : 10.5762/KAIS.2016.17.7.220
- [15] E. Y. Park, Y. J. Jang & J. P. Hong. (2017). Factors Analysis Related to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Satisfaction on Hospit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5(1), 825-833.
DOI : 10.15205/kschs.2017.03.31.825
- [16] Y. J. Lee. & J. H. Shin. (2012).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Further Career Choice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2), 725-733.
DOI : 10.5762/KAIS.2012.13.2.725
- [17] S. M. Park. (2012).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ngju.
- [18] Y. M. Lee. (2012). *Factors Related to Clinical Laboratory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Clerkship*.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19] J. A. Cha. (2013). *Correlation between for nursing students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20] H. S. Kim. (2004). A Study on the Satisfaction degree for Clinical Practice of Radiotechnology Studen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7(4), 75-83.
DOI : 10.6009/jjrt.27.75
- [21] D. Arthur.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22] G. A. Song & C. H. No. (1996).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94-106.
DOI : 10.7739/jkafn.1996.26.1.94
- [23] J. S. Kim. (2001). *A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24] J. H. Yoo. & H. J. Choi.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553-561.
DOI : 10.14400/JDC.2019.20.3.553
- [25] H. O. Kang. (2010).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gu.

김 희 경(Hee-Kyeong Kim)

[상위]



- 2008년 2월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행정학석사)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박사수료)
- 2018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환경보건(스트레스호르몬), 치매

· E-Mail : khk3406@nate.com